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100년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문화사회학 전공
스포츠와 정치, 사회, 미디어 등
스포츠와 사회 전반 문화 현상의 관계에 관심
prague@naver.com

2020년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대한체육회는 1920년 7월, 조선체육회로 창립되어 1백여 년의 우람한 역사를 써왔다. 일제 강점기의 민족적 수난을 견디는 구심체였고 해방 이후 개발도상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던 ‘국위선양’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남북간 체제 우위 경쟁, 개발도상국가의 국가 위상 제고 등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주의 스포츠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0세기 중후반에 스포츠 선진국들이 중장기적 국가 정책으로 시행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즉 전후 사회 복구, 스포츠를 통한 사회관계 형성,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스포츠복지 사회의 실현이라는 전반적 흐름과는 다소 괴리된 이 시스템은 이제 그 한계를 다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 문화 다양성이라는 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여 각종 인권침해, 부정과 비리,



출처: shutterstock

스포츠인들의 사회적 고립, 스포츠 조직의 불건전성 등의 문제와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제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세계 무대에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우애를 증진하고 안으로는 국민 모두가 소외와 고립 없이 스포츠를 통하여 활발히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보자.

스포츠에 대한 인식 변화

첫째,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스포츠는 사회적 행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 그 가치 지향이 변하고 개념도 확장된다. 스포츠는 한 개인이 물리적으로 행위하는 측면에서 보면 신체 활동이지만, 고대의 제의나 중세의 놀이와 달리 근대 이후 국민국가 형성과 관련되어 발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20세기 스포츠 개념이 전통적인 ‘체육’, 즉 건강한 신체 발달이었고 냉전 체제 확립 이후 각국이 국민 전체의 체력 증진에 몰두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국민국가 단위의 주권 개념과 결부된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스포츠의 주체가 ‘모든 사람(every human)’으로 확장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목표 또한 신체 능력 증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의 스포츠 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강인한 신체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스포츠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고 사회적, 문화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스포츠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교육권, 환경권, 노동권 등과 긴밀히

연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21세기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스포츠는 확장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1995년 ‘스포츠: 게임의 육성(Sport: Raising the Game)’을 수립하면서 스포츠를 세대와 사회를 건강하게 관계 맺게 하는 힘으로 규정하였다. 단순히 스포츠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가중되는 의료서비스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스포츠 참여 증대와 전 생애주기 스포츠 참여 기간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 유지뿐 아니라 공동체 전반의 활력을 증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이를테면 스포츠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This Girl Can’ 캠페인을 시작하여 여성의 스포츠 활동 강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였다. 독일 또한 개인의 스포츠 활동 보장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 이해 및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 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위해 스포츠를 활기차게 활용하였다.

또한 근대 산업 발달과 민주주의 확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스포츠클럽이 21세기에도 지역 공동체 회생에 적극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1980~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동기에 유럽 각 지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도시들이 쇠퇴하면서 실업률, 도시 공동화 및 슬럼화, 인구 변동 등이 발생하였고 이렇게 쇠락해가는 도시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과 그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 북부의 공업도시 빌바오는 1980년대까지 스페인의 금융 및 철강 산업 중심지였으나 한때 실업률이 24%까지 치솟는 등 위기를 겪게 되자 장기적 관점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그 중심에 스포츠클럽과 공간을 중요하게 배치하였다. 스포츠단지를 조성하고 스포츠공간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클럽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주민들의 관계 회복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다.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지에 위치한 셰필드 역시 1990년대 철강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주거, 교육, 문화, 세대 등에 걸쳐 숏한 갈등을 겪게 되자, 도시재생펀드 등 다양한 재원을 조성하여 경기장과 생활스포츠단지 등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회복,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냈다. 21세기 들어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자 덴마크 코펜하겐은 스포츠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슈퍼킬른 공원’을 조성하여 인종, 종교, 거주 과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대 ‘올림픽 참가’만이 목표가 아니며 대회 성적만이 ‘국위선양’의 지표가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 스포츠를 통한 남북간 평화 분위기 조성 and 지속적인 교류를 시작으로 하여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의 긍정적 기능 모색, 청소년의 체력 증진으로 시작하여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갈등 완화, 스포츠클럽을 통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 해결, 스포츠 내부의 성차별 해소와 스포츠에 의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 등 보다 당대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오랜 관행과 낡은 제도의 개선

둘째, 위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우리의 오랜 관행이나 낡은 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위의 맥락에서 살피건대 체육계 전반의 요구에 따른 「스포츠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스포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실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증진 정책 수립이 근거가 필요한 바, 그것이 바로 「스포츠기본법」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이 보장되는 한편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연령차별 등을 예방하여 새로운 100년의 한국 스포츠가 민주주의 발전 및 시민사회 성숙과 궤를 같이하면서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진천선수촌으로 상징되는 여러 엘리트 지원시스템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진천선수촌은 국제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췄으나 인권 및 학습권 보장, 효과적인 과학적 지원, 쾌활하고 자율적인 문화 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고 따라서 그 공간 운영에서도 폐쇄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스포츠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들이나 한국 스포츠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의 관점에서 볼 때, 진천선수촌은 현재와 같은 ‘장기합숙형 반복 훈련’ 체계에서 벗어나, 전국 각지의 훈련 시설과 전문 인력을 네트워킹하는 가운데 각 회원종목 단체 및 지도자와 선수들이 필요시 단기체류하면서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진적인 기술과 훈련을 도모하는 ‘단기체류형 과학 훈련’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장기합숙형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생활 통제, 사회적 고립 등에서 벗어나 과학적, 개방적, 자율적 공간으로 진천선수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스포츠의 · 과학을 통합 지원하는 추세이나 아쉽게도 진천선수촌은 선행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력 향상보다는 의료 지원 대응이나 재활 치료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선수촌 내에 상시적으로 밀착된 맞춤형 스포츠의 · 과학 지원이 필요하며 각 전문가의 의견이 지도와 훈련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도자 개인의 고유한 지도 철학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 과학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인권 전문가, 생활 관리 전문가 등의 판단을 두루 청취하여 선수의 훈련이나 생활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스포츠 환경

셋째, 국제 스포츠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스포츠 종목, 스포츠 교육,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콘텐츠, 스포츠 산업 등이 새롭게 변하거나 확산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인종, 젠더, 환경 등의 21세기적 의제들이 스포츠 내부로 들어와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 스포츠가 고유의 국가간 경쟁과 더불어 인류 보편의 가치와 합류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엘리트선수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100년의 한국 스포츠가 일제 강점기에

서 해방된 신생독립국이 경제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국위선양’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에 있어 세계 10위권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우애와 연대의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스포츠 외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지난 시대의 ‘스포츠 외교’란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스포츠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되 ‘자국 이해의 관철’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분쟁이나 인종 차별 등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또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마땅히 함께해야 할 과제다. 스포츠의 공적 개발과 연대의식에 기반한 원조, 스포츠를 통한 저개발국가의 스포츠 발전 및 그 사회적 상황(인권, 교육, 문화 등) 개선, 2032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과정에서 스포츠를 통한 진정한 평화와 화해 호소 등, 범세계적 평화와 우애의 증진에 함께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굿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계가 사회 전반의 민주성과 다양성에 부합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공공성을 띤 스포츠 조직은 이른바 ‘스포츠 굿 거버넌스(Sports Good Governance)’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IOC, FIFA 등 국제 스포츠 기구는 개별 스포츠 단체 및 각국 스포츠 기구의 조직 건전성과 공공성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IOC는 코펜하겐에서 ‘올림픽과 스포츠운동의 굿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적 보편 원칙’을 천명하였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스포츠 선진국 연구소 등이 참여한 S4GG 프로젝트는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동체 가치 실현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 조직의 비전 제시와 장기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스포츠 굿 거버넌스 기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스포츠에서 ‘굿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이유는 스포츠 그 자체의 특징, 즉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행위라는 점에 있다. 스포츠가 범지구적 차원에서 수많은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중계)되는 행위인 바, 이로 인하여 대중과 미디어는 지도자와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기구(IOC 등)와 조직(각국 체육단체 또는 각종 종목단체)에 대해서도 열렬한 관심을 갖게 된다. 선수와 해당 종목에 대한 강렬한 감정은 지도자와 해당 조직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직결된다. 관심, 응원, 사랑 등의 열렬한 감정에 기반하여 지도자와 선수가 활동하게 되고 이로써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운영 및 스포츠 산업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대중적 관심과 사랑에 기반한 스포츠 기구와 조직은 반드시 굿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국제 대회에서 가치 있는 성적을 냈을 때 선수는 물론 해당 지도자와 그 종목 단체에까지 아낌없는 성원이 이어지는가 하면, 각종 인권침해와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때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는 것에서 ‘굿 거버넌스’의 의미는 충분히 확인된다.

만약 ‘굿 거버넌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대중의 사랑과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여 기업의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상급 단체 또는 해당 국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기구와 조직들이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IOC가 제시한 ‘스포츠 굿 거버넌스’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국위선양

앞서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다고 했지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고 그 인간적 관계망도 급속히 해체되거나 변동을 겪고 있다. 기성세대에게 익숙했던 가족, 친구, 선후배 등의 실핏줄 같은 인간관계도 해체 또는 변형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의 스포츠 정책은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여 보다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과 아울러 개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과 소외 등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양한 인구집단의 시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복리(well-being) 증진은 물론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소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여 21세기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문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새로운 100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의 새로운 ‘국위선양’이다.